

## 산북지역 마을건강 사업의 현황과 방향

산북지역사회 개발위원회

김 수 자

### 서 론

1973년 지역사회개발 아동복지재단에 의하여 설립된 산북지역 사회개발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회관은 탁아소, 진료소, 예식장, 회의실, 마을금고 등 다방면으로 이용되고 있는 곳이다. 내가 이 산북에 마을건강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1979년 7월 1일부터이다. 글자 그대로 이곳은 산이 병풍처럼 둘러 쌓인 곳이며 그리고 복지관 앞으로는 1시간마다 양평과 서울로 가는 버스가 뽕뽕 먼지를 날리면서 달리고 있고 그 옆에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은 평화로운 지역이다. 이 산북에 마을건강 사업이 시작된 동기는 병원이나 보건소가 멀리 떨어져 있고 면사무소 보건요원마저 자주 접촉할 수 없는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기에 관심을 갖어야만 했다. 산북지역 사회개발위원회는 1976년 6월에 1차 3개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7월부터 2차 3개년간 계획이 착수되었으나 보건 사업이나 의료사업이 무엇보다도 시급했지만 기술과 많은 돈이 필요한 사업이라 해결하지 못해 드던 중 농촌의학회와 지역 사회개발아동복지재단의 후원으로 마을건강사업이 추진되었다. 본인은 1961년부터 간호학교 조산원 등 교육을 받고 계속 근 20여년간 간호사업에 몸담고 있으며 8년간 외국 생활에서 내가 할 일은 높은 병원에 근무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 농촌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더 보람된 삶이라는 것을 믿고 시작했다. 그리하여

마침 농촌의학회에서 산북 지역의 마을건강사업에 간호원이 있었으면 하기에 난 서슴치 않고 이곳에 왔고 그리고 평소애 생각하고 있던 무의면의 주민을 위하여 봉사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즐거움과 보람된 일을 해오고 있다.

### 산북의 연혁

산북지역은 서울에서 동남방으로 68 km 떨어진 금사면내 8개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면적에 83%가 산으로 둘러 싸인 지대로 주민의 대부분은 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농촌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450년전 세 정승(이씨, 서씨, 원씨)이 처음으로 이곳에 정착하였으며 지금도 이 지역은 전체 인구 중 40%는 전주 이씨가 차지하고 있고, 금사면 소재지로부터 15 km 떨어진 큰산 북쪽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산북이라 불리워지고 있으며 행정적으로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에 속하고 남으로는 이천군 북으로는 양평군 서로는 광주군이 접해 있다.

1973년 산북지역은 송현리, 상품리, 후리, 하품 1, 2 리, 백자리, 용담리, 주록리 등 8개리 주민들로 구성된 산북 지역 사회개발위원회가 조직되어 활동해 오고 있다.

### 사 업

#### 1) 교육

##### 가. 사회지역의 보건교육

- ㄴ. 마을건강요원교육
  - ㄷ. 모든 마을어른 매월 1회 교육
  - ㄹ. 학교보건교육
- 2) 상담
- ㄱ. 복지관에서 영유아 모성보건 가족계획 예방에 관한 상담
  - ㄴ. 환자상담
  - ㄷ. 환자 약 복용에 관한 상담
- 3) 보건교육실습
- ㄱ. 산북복지관
  - ㄴ. 가정
- 4) 어머니 건강
- ㄱ. 산전 진찰과 상담
  - ㄴ. 가정 분만
  - ㄷ. 산후 가정방문과 상담
- 5) 가족 계획
- ㄱ. 가족계획을 받아 들이도록 상담과 권장
  - ㄴ. 경구 피임약 투여
- 6) 어린이 건강
- ㄱ.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상담
  - ㄴ. 영양실조 예방
  - ㄷ. 예방접종
- 7) 전염병 관리
- ㄱ. 예방법에 대한 교육
  - ㄴ. 질병의 조기발견
  - ㄷ. 가구와 음식위생에 관한 건강습관 연구
- 8) 결핵환자 관리
- ㄱ. 결핵환자의 감별
  - ㄴ. 예방접종
  - ㄷ. 예방에 대한 교육
  - ㄹ. 정기적인 진찰
  - ㄺ. 투약을 감독
  - ㄻ. 가족을 위한 영양공급
- 9) 환경 위생
- ㄱ. 현재 사용하는 변소, 우물, 축사에 대한 조사
  - ㄴ. 건강습관에 대한 교육
  - ㄷ. 변화에 대한 필요를 인식시킴
  - ㄹ. 새마을 운동에 적극 협조
- 10) 기생충 박멸
- 농촌의학회에서는 기생충 박멸 사업의 일환으

로 고려대학교 기생충학교실 임한중박사님 팀들이 중학교 350명 국민학교 450명 전체 8개부락 주민 1,500명을 대상으로 변검사와 두번에 걸쳐 투약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90%에 가까운 사람이 혜택을 받았다. 한강상류인 이곳 주민들의 간디스토마 검사를 실시하여 기생충 박멸에 힘쓰고 있다.

#### 11) 기타 보건사업

이 외에도 불결에서 오는 만성 피부병, 만성 위장병과 특히 부녀자들이 너무나 고된 노동 등으로 빈혈이 많아 부녀자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영양식이법을 권장하고 어려운 병은 농촌 의학회 의사들의 처방을 받아 치료해 오고 있다

### 1980년도 보건 사업의 방향

본인이 진료소에서 상담을 하고 약간의 진료를 하다보니 각 부락에 손이 닿지 않는 곳이 너무나 많았다. 그래서 지역사회 개발위원회와 부녀회의 결의를 얻어 각 부락에 마을 건강요원을 1명씩 선정하여 보건요원을 구성하고 교육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가급적 작은 의료상식과 보건 지식을 알게 하여 질병없는 산북지역이 되게 하고자 한다. 그래서 마을 건강 요원을 시키기로 하여 8명을 우선적으로 뽑았다. 마을 건강 사업은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첫째 서비스 전달계획(이 진료소)을 새로이 만들어 주민의 적극 참여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보다 더 나은 보건활동을 할려고 한다. 마을 건강 요원을 뽑는대는 산북 부녀회를 통해서 현재 마을에서 그 부락을 위해 아낌없이 봉사하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선발되었다. 이분들은 당분간 복지회관의 상담진료소에서 교육과 실습을 하도록 되어 있다.

1. 간단한 비상 처치법
2. 영유아 미취학 어린이 건강상태 파악
3. 가족 계획에 대한 모자보건
4. 간단한 응급 처치법
5. 가정부락에 마을 위생을 위한 교육
6. 안전 산모를 위한 교육

1979년 7월—1980년 9월말까지 활동상황

월	동	모자보건	가족계획	결핵상담	진료예방	유아보건 상	보건의료 상	보건의료 상	일반진료 기	비고	계	일평균	%
'79.	7	48명	의뢰 24명	보건소 4명 의뢰 24명	102명	69명	32명	88명	병원 1 의뢰		412	16	30
'79.	8	51	26	보건소 6 상 담 26	36	120	69	44	2		366	15	75
'79.	9	48	29	41	82	67	79	67	9		420	17	85
'79.	10	41	31	54	94	84	102	79	12		497	20	100
'79.	11	51	24	62	51	90	107	89	7		481	19	95
'79.	12	14	36	68	50	57	100	72	5		402	16	80
'30.	1	41	39	32	27	28	92	47	2		308	13	65
'30.	2	51	47	27	19	20	80	59	8		328	13	65
'30.	3	39	36	20	31	39	82	61	3		311	12	60
'30.	4	47	45	23	32	32	100	69	6		354	14	70
'30.	5	29	55	21	27	47	127	76	1		353	14	70
'30.	6	38	35	36	39	49	320	79	8		604	24	120
'30.	7	32	39	42	49	62	340	120	9		693	28	140
'30.	8	30	41	22	23	80	370	67	14		647	26	130
'30.	9	29	31	23	27	92	120	68	12		401	16	80
계		587	508	475	681	935	2,120	1,085	99		6,490		
월평균		39	34	32	45	62	141	72	7				
월%(100)		39	34	32	45	62	141	72	7				

총계 : 6,490명

1. 제 1차 기독교 선교 의료봉사단 45명 주민 진료 1,360명
1. 제 2차 기독교 선교 의료봉사단 21명 주민 진료 485명
1. 동광라이온스클럽 의료봉사단 40명 주민 진료 442명
1. 주민 기생충 박멸사업 임한중 박사의 5명 주민대상
1. 이주군 보건소 협조로 이동 엑스레이촬영 5명 동원 250명 촬영

결 론

그동안 경험으로 보면 지금 어느 곳이나 새마을 소독증대 사업도 중요하지만 마을건강사업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도시에서는 100 m 간격에 병원이 있지만 농어촌 및 산간벽지에는 병원을 찾아보기 힘들다.

더구나 이 산복 지역은 면소재지와 너무나 먼 거리에 있고 교통이 불편해서 병원에 갈려면 많은 교통이 있음을 본인은 알고 있으며, 또 큰 병원에 가기 전에 지역 자체에서 예방을 하므로서 일차 진료에서 끝나는 확률이 많기 때문이

다. 농촌의학회 도움으로 1년 이상 근무해본 본인으로서 이 보건사업이 어떤 방향으로든지 꼭 지속되어야 된다고 본다. 모든 질병은 예방을 함으로서 많은 혜택을 볼을 주민들은 스스로 느끼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과의 상담과 가정방문 등으로 느낀점은 질병없는 농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한결같은 소망이다. 앞으로 일년만 더 이 지역에 보건사업이 계속된다면 각 부락 마을 건강 어머니들의 교육이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본인은 믿기 때문에 농촌의학회에서 좀더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후원해 주신 농촌의학회에 계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앞으로 많은 후원이

있으시기를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 연간동향 보고서

79.6—80. 9.

- 1) 1979. 6. 22 : 김명호 박사님의 의사 2명 간호원 2명 아동복지 재단 직원과 함께 1차적으로 상품국민학교 급식학교로서 기초 신체검사 실시하다.
- 2) 1979. 6. 29 : 김명호 박사님팀과 함께 배조학교인 이포국민학교에 기초 신체검사 실시하다.
- 3) 1979. 1. 21 : 미국 체이스맨허턴 한국지점 직원코넬씨와 두 분이 세계 아동의 해 기념행사지원협의 차 본 복지회관과 사업 활동을 돌아 보고 가셨다. 그 후 이 은행에서는 소형 냉장고를 보내 주셔서 의약품 보관용으로 잘 사용하고 있으며 특별사업비를 지원해 주셨다
- 4) 1979. 8. 1 : 제 1차 한국기독교 의료선교단 김명호 박사님의 45분이 2박 3일간 의료봉사 활동을 상품국민학교에서 실시하였다. 1,360명
- 5) 1979. 8. 17 : 한국 농촌의 사회의료사업의 일환으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 교실에서 산북주민(송현, 백자, 하품 1, 2리) 450여명의 변검사를 한 후 투약을 하고 돌아갔다. 구체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 투약 310명중 88%는 구제하고 12%는 구제가 되지 않아 추후 재투약하여 100% 구제할 계획이다.
- 6) 1980. 8. 10 : 산북 부녀회는 복지회관에서 총회를 갖고 80년도 임원을 새로이 선출하였다. 회장—송지영(하품 1리부녀 회장),

부회장 황명자(상품 1지구부녀회장), 총무 오경환(백자리 부녀회 총무)씨가 선임되어 마을건강어머니가 각 부락에서 선출되다.

- 7) 1980. 3. 13 : 한국 농촌의학회 부회장이신 임한중 박사, 고려대학교 의대 교수의 4분이 산북 주민 120명과 어린이집 국민학교생, 중학생의 간디스토마와 요충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반 진료와 함께 주민의 기생충 구제 사업의 필요성도 제명하여 주시었다.
- 8) 1980. 3. 27 : 산북지역 각리마을 건강어머니 9명이 지역사회개발 아동복지재단에서 주최한 마을건강 어머니 통합훈련 교육에 6박 7일 동안 의료실 김수자 선생님의 인솔로 참석하고 돌아왔다.
- 9) 1980. 4. 17 : 월간 간호사 강신현 기자가 산북 1차 의료실 김수자씨를 방문하고 사업활동을 돌아본 후 월간 간호 80년 6월호에 산북 의료 사업활동을 보도하였다.
- 10) 1980. 4. 19 : 고려대학교 기생충학 교실에서 기생충약 투여 5개 부락.
- 11) 1980. 4. 20 : 서울 동광라이온스클럽 무의촌 진료팀 40명이 산북 지역을 방문하여 주민 442명에게 진료 및 상담을 하여 주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치과—120명, 내과—88명, 소아과—60명, 한방과—61명, 약학(일반)과 113명 등 총 442명이 참여하였다.
- 12) 1980. 5. 20 : 고려대학교 기생충학 교실에서 채변검사 오심.
- 13) 1980. 6. 17 : 투발로라는 작은 나라의 부

수상인 이오나다나씨가 한국 정부가 초청하여 내한 중 산북 복지회관 산북 지역을 방문하였으며 이날 여주군 이정구 군수님의 영접을 받고 이메리여사등 한국 아동복지회에서 안내를 하여 주시었다. 그리고 보건사업에 대해서 이메리여사님께서 농촌의 학회에 찬사를 보내시다.

14) 1980. 9. 20 : 보건간호원회 회장님이신 유

순환 선생님께서 보건 사업을 돌아보고 가시다.

15) 1980. 9. 30 : 전부총리 이한빈 박사님께서 산북복지회관 보건사업을 모시고 가시다.

16) 1980. 8. 21-22 : 2차 기독교 선교 의료봉사단 1박 2일, 치과 174명, 산부인과 45명, 한방 113명, 안과 22명, 소아과, 37명 내과 62명, 외과 33명, 그외 29명 총 485명을 치료하셨다.